

## 시끌벅적 e-스타



## 오덕후의 단계 테스트 해보세요

'너, 오덕후지?', '오덕후는 사회악이다!'

매일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 요즘에는 '오덕후'라는 신조어가 세력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오씨 성을 가진 덕후? 누구 유명한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에게 설명하자면 '오덕후'는 어떤 사물, 사람이나 일에 빠져 집착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의 변형. '당신', '댁'이라는 의미의 이인칭 대명사 '오타쿠'는 본래 마니아보다 좀 더 심취해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식으로 바꿔다 보니 '오덕후'가 됐다. 좀 더 여성스런 이름은 '오덕희'라고 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자가진단을 위한 '오덕후의 단계, 테스트해보세요'라는 동

영상이 등장했다.

첫 번째 단계는 추종형이다. 좋아하는 가수를 쫓아다니는 행동, 이것은 팬으로서 아주 정상적이다. 좋아하는 스타가 많은 팬에 둘러싸여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동경만 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좋은 상태. 추종형의 단계가 지나면 수집형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취미삼아 스타와 관련된 물건이나 인형을 수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안 가득 밀 디털 틈 없이 수집 물이 쌓여있다면 수집癖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현실감 상실형.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 혹은 수집하는 인형 앞에 케이크를 차려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현실감 상실의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누군가 내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Ennio Morricone(엔니오 모리꼬네)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감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축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많이 빨발 되었지만 그리 길지 않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창작곡 보다는 주로 외국의 음악을 편곡해서 썼는데, 비극적인 사랑의 장면이면 어김없이 흘러나왔던 음악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의 'Jill's Theme'다.

찰스 브론슨과 헨리 폰다, 그리고 C.C로 알려진

driguez(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포르투갈의 대표 음악인 Fado(파두)를 월드 뮤직으로 나아가게 한 그녀는 두 대의 기타로 연주하는 파두 음악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오키스트레이션을 도입해 응장함을 더했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환생을 보는 듯한 풀체 폰테스는 전통적인 파두와 현대의 음악의 조화를 이끌어 낸 가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열정적 이면서 파워풀한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응축해 놓은 듯 가슴 절절한 울림을 준다. 이런 그녀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노래한다면 생각만 해도 멋진 노래가 나오리라 짐작할

## 박용수의 팝스 칼럼



##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Jill's Theme'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우리나라에서는 '웨스턴'으로 소개되었음)의 주제곡이 바로 그 곡이다. 이 곡은 Edda Dell'Orso(에다 델 오르소)의 솔로 소프라노와 관현악의 학음을 만들어낸 서사적 비장미가 감돌아 영화 음악을 오페라적인 경지까지 끌어 올렸다는 찬사를 받았다.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곡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곡이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은 영화를 보면 잔혹하거나 섬뜩한 장면에 오히려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곤 하는데, 그는 강한 음악보다 때로는 상반되는 음악이 관객으로 하여금 더욱 영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시도를 한다고 말을 한다. Jill's Theme나 그의 또 하나의 명작인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의 Deborah's Theme가 바로 그런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엔니오 모리꼬네는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과 조인트 앨범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인 Dulce Pontes(풀체 폰테스)이다. Amalia Ro-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발표한 두 사람의 조인트 앨범 Focus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을 풀체 폰테스가 노래한다. 그녀는 Jill's Theme를 두 가지 버전으로 Your Love와 O Amor A Portugal이라는 포루투갈어 가사로 노래하는데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에는 포루투갈어로 부른 O Amor A Portugal이 수록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40년 전에 발표되어서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Jill's Theme는 내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접한 많은 음악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음악으로 남아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좋아했던 이 곡은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나를 지탱해 주는 친구이자 버팀목과 같은 음악으로 남아있다.

Fado에 남겨져 있는 운문처럼 엔니오 모리꼬네의 Jill's Theme는 새롭게 편곡된 Dulce Pontes의 목소리와 함께 내게 운문처럼 다가와 음악과 함께하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고 있다.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 진행

## 리빙 센스

## 구두 관리

구두는 손질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명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랫동안 깔끔하게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파우더로 냄새 관리

신발에서 냄새가 날 때는 속이나 막다 남은 찻잎을 넣어면 좋습니다. 찻잎은 땀이 많아 날 때는 파우더를 뿌려주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초로 표면 닦기

구두를 오래 신어서 표면이 벗겨졌거나 윤이 나지 않을 때는 양초를 이용해 보세요. 양초를 칠한 후 라이터로 옆을 주면 양초가 녹아 가죽에 스며듭니다. 악질을 한 후 마무리 하면 깔끔해집니다.

## ■신문지로 습기 제거

비오는 날 외출을 했다면 젖은 구두 속에 신문지를 채워 보관해보세요. 구두의 습기가 제거되어 오랫동안 깔끔하게 구두를 신을 수 있습니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2월 6일 壬子)

 子	36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48년생 육십은 회를 부르니 소망대실 하지마라. 60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철저히 조심해라. 72년생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진다.
 牛	3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나 찾아온다. 49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61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순은 없다. 73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85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寅	38년생 구사가 괴롭거나 큰 일은 아니다. 50년생 외부의 일에 기장에까지 소란사로 벌어지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62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은 편안하다. 74년생 척실히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邏	39년생 삼사일만하면 미움은 없으리라. 51년생 옛 강정은 빨리 텔어버리면 새로운 정이 솟아난다. 63년생 말다툼이 솔사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강정을 정리하라. 75년생 애인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03, 26
 辰	40년생 가득 찬 참고가 모두 내 것은 아니다. 52년생 수아인과의 동업은 흥대금 하라. 64년생 간장과 위장의 평안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겸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38
 巳	41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된다. 53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안락하게 결정 난다. 77년생 보기 좋은 빅 먹도 좋다. 결과 속이 꽉 찼다. 행운의 숫자 : 17, 29
 午	42년생 차 조심 사람조심. 54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66년생 아득한 보금자리이나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다. 78년생 자신과 가정 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未	43년생 협조자가 나타나 새로운 일을 전진해간다. 55년생 적장을 포로로 잡은 경이니 큰 삶이 있을 수. 67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79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32
 申	44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 예상된다. 56년생 자신의 힘은 식탁에서 나오나. 68년생 방풍립은 여자가 만들어낸 효과가 있다. 80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거나 남을 존경하는 하루가 되다. 행운의 숫자 : 08, 37
 西	45년생 좋은 협력을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집안은 광양과 함께 텔 밖으로 벌어져야. 8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야. 81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9, 36
 戌	4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족은 국가 경제로 통하니 가계를重하하라. 70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82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 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4, 45
 亥	4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결과는 반반이다. 59년생 시가문서에 속상할 수나 둘바로 저신하면 면벌 수 있다. 71년생 과육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83년생 이상 보다 친구를 만나라. 행운의 숫자 : 24, 25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lt;1116&gt;

Are you getting hungry?  
자기야, 배고프지?

A : Are you getting hungry?  
B : Yah, let's fix something to eat.  
A : Well, I'd rather go out to eat than cook dinner.  
B : OK, where do you want to go?

A : 자기야, 배고프지?  
B : 그럼요. 뭐 좀 요리를 해야겠어요.

A : 음, 저녁을 요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 먹어야겠어.  
B : 알았어요, 어디로 가고 싶죠?

\* fix : (식사를) 만들다, (요리를) 준비하다  
\* 중고차보다는 새 차를 사고 싶어요.  
= I'd rather buy a new car than buy a used car.  
\* 미국으로 가느니, 차라리 타이완에 머물겠어요.  
= I'd rather stay in Taiwan than move to the United States.  
\* 설거지 보다는 차라리 식탁 준비를 하겠어요.  
= I'd rather set the table than wash the dishes.

## 오하요우 니혼고 &lt;1116&gt;

やる氣(き)満(まんまん)ですね。  
자신 만만하군요

A :今回のプロジェクトの責任者(せきにんしゃ)を命(めい)じられちゃったよ。  
B :それは責任代(せきにんじゅうだい)ですね。  
A :うん、必(かならず)成功(せいこう)させてみせるよ。  
B :やる氣(き)満(まんまん)ですね。  
  
A :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돼 버렸어요.  
B : 그거 책임이 막중하겠군요.  
A : 응, 반드시 성공시켜 보여 줄게요.  
B : 자신 만만하군요.  
  
命(めい)じられる : 명령을 받다  
必(かならず) : 반드시  
やる氣(き)満(まんまん) :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득함

## 니하오 쟁구워 &lt;93&gt;

你做什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 你做什麼?  
nǐ zuò shéme  
E: 做什么  
zuò gōngkè  
A: 功课多吗?  
gōngkè duō ma  
E: 功课多吗  
hěn shǎo  
A: 晚上做什么?  
shàng wǔ shéme  
E: 晚上做什么  
gǔn bù zuò  
A: 晚上做什么呢?  
shàng wǔ zuò ne  
E: 晚上做什么呢  
gōngkè [gōngkè] 공부, 스업  
shǎo [shǎo] 적다

## 한자 이야기 &lt;703&gt;

待人春風(대인춘풍)  
대할 대, 사람 인, 봄 춘, 바람 풍

춘풍(春風)은 봄바람이다.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세차게 부는 북풍(北風)이 아니라 살랑살랑 부는 춘풍이다. 태인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라는 말이 '대인춘풍(待人春風)'이다. 반면에 자신을 지킬 때 있어서는 가을서리처럼 단호하고 매섭게 하라는 말이 '지기추상(持己秋霜)'이다. 이 구절들은 '풀뿌리를 캐는 이야기'라는 뜻의 채근담(采根譚)에 실려 있으며, 처세술(處世術)에 있어서 새겨들을 명언(名言)이었다.

'대인춘풍'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녹록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작은 것일지도라도 냉혹하게 평가하는 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아박하게 남을 꾸짖고 관대하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孔子)는 일의 실패원인을 엄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군자(君子)가 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 소인(小人)이 된다고 경계하였다. '춘풍' 속에서 나는 과연 '대인춘풍'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가를 들이켜 생각해본다.